

람모한 로이(Raja Rammohan Roy)의 종교관

— 신(god)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

윤 용 복*

- | |
|------------------|
| I. 시작하는 말 |
| II. 람모한 로이의 생애 |
| III. 람모한 로이의 종교관 |
| IV. 맺음말 |

I. 시작하는 말

18세기부터 영국의 실질적 지배를 받던 인도는, 19세기에 이르러 명목상의 독립조차 사라지고 완전한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¹⁾가 되었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서구 문화가 인도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당시의 인도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이러한 인도의 상황은 다양한 종교 및 사회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동학을 필두로, 다양한 민족종교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Kang Youwei(康有爲)가 공교(孔敎)운동을 일으켰다. 우리 나라나 중국도 당시 외세의 영향으로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다. 특히 당시 우리 나라는 서구의 과학 문물과 천주교의 전래에 대해 다양한 문화적 반응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 장안대학 강사

- 1) 1757년 플라시 전투 이후, 그간 영국과 계속 대립을 보여오던 프랑스가 인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고 인도는 실질적인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 남아있던 인도의 각 부족들이 영령인도로 차례차례 병합되고, 1858년부터는 영국정부가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이 공식적으로 인도의 국왕임을 선포하였다.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2000, 592-593쪽.

인도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과거와는 달리 인도전역을 무대로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²⁾ 새로운 종교가 전래된 것에 대한 인도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종교계에서는 힌두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등, 기독교를 제외한, 인도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에서 개혁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운동들 가운데,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힌두교의 종교운동들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고는 근대 인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힌두교 종교운동인 Brāhma Samāj³⁾(또는 Brāhmo Samāj)의 창시자인 Raja Rammohun Roy(이하 '람모한'으로 약칭)의 종교관, 특히 그의 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람모한은 근대 인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인도 근대화의 선구자적 인물이다. 그는 종교와 교육을 통해 인도의 무지와 전근대적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당시 인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에 일어난 인도의 종교운동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람모한이 창시한 브라흐마 사마지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따라서 람모한의 종교관을 파악하는 것은 19세기 인도 종교운동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그의 출생과 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그의 종교관, 특히 그 중에서도 신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근대에 들어오면서 최초로 인도에 들어온 서양세력은 포르투갈인들이었다. 이들이 인도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경제적인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 포르투갈 인들은 1510년 비자푸르 술탄으로부터 고아를 탈취하여 그곳을 동양의 포르투갈 수도로 삼았다. 그들은 이어서 포르투갈의 가톨릭 문화를 고아에 이식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지역 내에는 힌두사원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단 종교 재판을 도입할 정도로 이교도에 적대적이었다. 사회적으로도 국제결혼을 장려하여, 혈통은 인도인이고, 종교는 가톨릭이며, 외모는 부분적으로 서구인의 모습을 한 인종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고아에서만 효력이 있었을 뿐 더 이상 인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인도에 대한 서구의 첫 문화적 공략은 실패로 종지부를 찍었다. Spear, Thomas George Percival, 이옥순 옮김, 『인도 근대사: 16세기~20세기』, 신구문화사, 1993, 72-74쪽. 이러한 과거의 사례로 인해,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던 초기에 기독교의 선교를 엄금하였다. 그러나 인도경영에 자신감이 붙게 된 19세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영국정부의 정책은 변화를 겪게 되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서구의 종교, 즉 기독교와 서구의 여러 문화가 인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Weak, Harry Hanson, *The Arya Samaj, Doctrines and Aims*, Thesis of M.A., Northwestern University, 1926, p.9.

3) Brāhma Samāj란 말은 진정한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Brāhmo는 Brāhma, 즉 우주의 지고적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며, Samāj란 Society, 즉 사람들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Sastri, Sivanath, *History of Brahma Samaj*, Calcutta: Brahma Mission Press, 1974, p.1.

II. 람모한 로이의 생애

1. 출생배경과 어린 시절

람모한 로이는 1772년 5월 22일 라다나가르(Radhanagar)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의 가계는 15세기 비쉬누파의 개혁가 차이탄야(Caitanya)의 추종자인 나로탐 타쿠르(Narottam Thakur)의 후손들이다. 브라만 계급이었던 람모한의 증조부 크리쉬나 찬드라 반디오파디야이(Krsna Candra Bandyopadhyay, 또는 Banerji)는 브라만 사제로서의 삶을 버리고, 벵갈 태수 무르시드 쿨리칸(Murshid Quli-khan)의 징세관이 되어, 라야 라얀(Raya Rayan)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칭호는 나중에 간략하게 라이(Ray)가 되어 가족의 성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무굴 정부에 있는 세속 브라만들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 콜레에 따르면, 비쉬누파의 독실한 신도라고 알려진, 람모한의 조부 브라자비노드 라이(Brajabinod Ray)는 태수인 알리바르디 칸(Alivardi Khan)의 정부에서 근무했으며, 나중에 시라즈 웃 다울라(Siraju 'd-Daula) 태수 밑에서 회계사를 하였다. 아버지인 라마칸타(Ramakanta, 또는 Ram Kant, '라마를 사랑하는 자')는 무굴정부에서 회계사로 관리생활을 시작하였다. 1757년의 혁명(플랏시 전투)에서 시라즈 웃 다울라가 태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동인도회사가 벵갈과, 비하르, 그리고 오릿사의 징세권을 넘겨받은 이후, 라마칸타는 후글리(Hugli) 지역의 라다나가르(Radhanagar)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자민다르(Zamindar, 즉 지주⁴⁾)가 되었다.

순수하고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브라만들은 람모한의 가문에 대해 세속적 삶(특히 무슬림 지배자의 정부에서)에 대해 비난하였지만, 람모한은 자신의 가문이 무굴제국 아래에서 3대에 걸쳐서 관청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 람모한은 무굴인들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지녔는데, 우선 힌두교인으로서 그는 무굴제국의 통치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무굴제국의 명예를 얻는 데는 열성적이었다.

4) Zamindar는 일종의 봉건 영주 비슷한 것이지만, 그 규모나 지위는 다르다. 우선 인도의 토지는 국유가 지배적인 형태이지만, 지주가 소유한 소규모의 토지도 존재하였다. 이 지주를 자민다르라고 하는데, 이들은 경작자들로부터 그 토지 사용료를 스스로 결정하여 받았다. 그러나 무굴제국 시기 정부는 자민다르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민다르의 사회에서의 위치가 모호하게 된다. 벵갈 지역의 토지세는 세습적인 자민다르들이 징수하였는데, 그들은 받아들이는 토지세 가운데 10분의 9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소유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민, 형사적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조길태, 앞의 책, 226, 310-313쪽.

람모한의 외가 쪽 조상들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⁵⁾ 람모한의 어머니인 타리니 데비(Tarini Devi)는 라마칸타의 두 번째 아내였다. 그녀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샵티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결혼 이후 남편의 가계 전통을 따라 비쉬누파의 신도가 되었으며, 생애의 말년은 뿌리(Puri)의 자간나타(Jagannatha) 사원에서 보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⁶⁾

그는 어린 시절 마을학교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산스크리트어와 페르시아어도 배우고 있었는데 산스크리트어 교육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원한 것이었다. 그의 부친은 그가 12살이 될 무렵 파트나로 보내서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를 공부하게 하였는데, 페르시아어와 아랍어는 명예와 지위를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파트나는 유명한 이슬람학문의 중심지였는데, 여기서 그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뿐만 아니라 아랍어로 번역된 유클리드 기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등을 배우고 아랍어로 된 코란과도 접하게 된다.⁷⁾ 이처럼 여러 학문과 접하게 되면서 그는 최초로 당시 인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신봉하던 힌두교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⁸⁾

파트나에서 돌아온 후, 람모한은 힌두교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우상숭배와 미신적 행위들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여 람모한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며, 람모한은 집을 떠나 이곳 저곳을 여행하게 된다.⁹⁾ 람모한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5) 람모한의 외증조부인 삼 바타카라(Syam, 또는 Shyama Bhattacharya)는 브라만 계층의 학자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트라(스리람푸르 근교)의 바타카라 가문 출신인데, 이들은 그 지방의 저명한 학자들로 알려져 있다. Robertson, Bruce Carlisle, *Raja Rammohan Ray: The Father of Modern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12.

6) *Ibid.*, p.12.

7) Collet, Sophia Dobson, *Life and Letters of Raja Rammohun Roy*, Calcutta: B. M. Press, 1913, p.5.

8) 그는 특히 이슬람 수피철학자들의 저작들에 매혹을 느꼈다고 하는데, 수피들의 견해는 힌두의 베단다학과와 부합되는 면이 많다. 이들은 정통 이슬람에서는 이교도처럼 취급을 받는데, 이후의 생활을 통해 람모한은 이 초기의 무슬림 영향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였으며, 사적인 생활에서도 오랜 동안 그의 습관과 기호는 이슬람적인 것들이었다.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수피 저자들에서 자유롭게 인용하였다. Sastri, *Op. cit.*, p.11.

9) 이 여행 중에 그는 티베트에 가서 라마승들과 토론을 벌이고, 그들의 미신적 행위를 비난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종교에 대한 그의 이런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agore, Saumyendranath, *Raja Rammohun Roy*, Sahitya Akademi, 1989, p.9. Sastri, Sivanath, *Op. cit.*, p.11. Farquhar, J. N. *Modern*

16살 무렵, 나는 힌두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체계가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글을 썼다. 이러한 내 사고방식으로 인해, 나는 내 가족과 소원해지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으로 여러 지역을 방랑하며 여행하였다. 그 여행에는 영국의 세력이 인도에 정착된 것에 대해 커다란 적대감을 가진 힌두스탄 지역까지 포함되었다.¹⁰⁾

이처럼 인도의 여러 지역을 여행한 것은 비록 타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인도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힌두교의 여러 관습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이다.

2. 종교와 사회 개혁 운동

그는 20대 초반 이러한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라다나가르 근교의 랑갈파라(Langalpara)에 있는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후 그는 비나레스에 살면서 산스크리트어와 힌두교 경전을 공부하였으며, 1796년에는 영어와 함께 영국문학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그의 종교개혁사상이 뚜렷이 싹트게 된 것은 이 무렵 영어공부와 함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때 영어와 함께 신·구약성경을 그리스·히브리 원어로 공부하였다.¹¹⁾

1797년 9월 람모한은 랑갈파라에서 캘커타로 이주하였다. 캘커타는 당시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그는 대금업을 하면서 동인도회사의 관리들과 접촉하였다. 동인도회사의 하급관리들은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대금업은 이들로 인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다. 람모한은 대금업을 기회로 삼아 관리들과 접촉하면서 동인도회사의 공직에 들어가는 기회를 잡게 된다.¹²⁾

람모한이 처음으로 동인도회사에서 한 일은 다카 잘랄푸르(Dacca-Jalalpur,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Faridpur)의 징세관인 토머스 우드포드(Thomas Woodforde)의 비서였다. 우드포드는 일찍이 람모한으로부터 5,000루피를 빌려쓰고 있었다. 그러나 람모한은 1803년 5월 11일 사직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부친의 병

Religious Movements in India, Macmillan Company, 1919, p.30.

10) Collet, S.D., *The Life and Letters of Raja Rammohun Roy*, Dilip Kumar Biswas and Prabhat Chandra Ganguli(eds), Calcutta, 1962, p.497.

11) 조길태, 「19세기 인도종교개혁운동의 성격」, 『아세아연구』 제20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7, 145쪽.

12) Chand, Tara, *History of the Freedom Movement in India*, Vol.2, New Delhi, 1967, pp.190-1.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친이 죽고 나서 그는 1803년 8월 11일 우드포드의 개인 비서로 다시 일하게 된다. 이때 우드포드는 무르쉬다바드(Murshidabad) 항소법정의 서기였는데, 람모한도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무르쉬다바드에서 람모한은 “Tuhfat-ul-Muwahhidin”, 즉 “일신론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은 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글은 아랍어 서문이 붙어있으며, 페르시아어로 저술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우상숭배와 미신적 신조들에 반대하고, 유일신 교리에 입각한 보편종교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작업이었다.¹³⁾ 이 글은,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 특히 브라만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그의 모든 사상의 중추이며,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람모한은 랑푸르의 동인도회사에서 힘들게 근무하면서도 종교적 진리 탐구를 계속하였으며, 힘든 와중에도 저녁시간을 할애하여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와 같은 각 종파의 종교인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종교관을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베다문헌에 대한 지식과 함께 탄트라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계속해서 영어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읽고 나폴레옹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국가에 대한 그의 의무, 즉 국가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그의 일생의 의무를 다지고 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¹⁴⁾

세무관으로서 랑푸르에서 근무할 때인 1811년, 그의 형 자간모한이 죽었다. 그러자 미망인이 된 형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형과 함께 산채로 화장되었다. 람모한은 어려서부터 이 여자를 따르고 매우 존경했었는데, 그녀의 잔인한 죽음은 그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관습이 폐지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¹⁵⁾

1814년 42살의 나이에 람모한은 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생의 작업을 하는데 힘을 쏟기 위해 관청에서 은퇴하였으며, 이 해에 캘커타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그 작업은 너무 방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는 무지와 미신적 행위가 온 나라에 만연해 있었으며, 벵갈의 토착민들은 서적이거나 신문이 없었다. 우상숭배는 일반적이었으며, 아내를 여럿 거느리거나, 유아살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벵갈 여성들의 대부분이 끊임없는 억압과 불행 속에 있었다. 반면에 여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인 suttee의 불꽃이 캘커타와 아주 가

13) Sastri, *Op. cit.*, p.12.

14) *Ibid.*, p.13.

15) *Ibid.*, p.30.

까운 근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매해 수십 건의 사티가 행해졌으며, 그 나이도 15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들로 인해 람모한 로이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¹⁶⁾

1815년 그는 소규모의 지식인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동포들을 깨우치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Atmiya Sabha, 즉 친선협회(Friendly Association)를 창설하였다.¹⁷⁾ 이 협회는 힌두교 사상 최초의 주간모임이었다. 그렇지만 이 협회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1819년 활동이 중단되었다.

1821년부터 람모한은 세람포르의 기독교 선교사였던 아담(William Adam) 등과 함께 유니테리언 협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기독교와 힌두교 양쪽의 유니테리언들이 모두 모여 종교의식을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활동은 1828년 중단되고, 람모한은 아담과 결별하기에 이른다.

같은 해에 람모한은 힌두교 유니테리언들만으로 브라흐마 사바(Brahma Sabha)라는 이름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종교의식을 지내게 되었다. 이 명칭은 나중에 브라흐마 사마지로 바뀌게 된다. 이 협회를 설립한 뒤, 다른 많은 종교개혁가들처럼, 람모한은 복장을 변화시켜 이슬람교도의 복장을 받아들였다. 자신은 평상시에도 이러한 복장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사마지에 참석할 때, 자신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늘 이러한 옷을 입도록 하였다. 평상복 차림으로 예배하러 온 제자를 꾸짖도록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그는 예배의식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경건함을 나타내려 하였다. 사마지에 갈 때면 반드시 걸어서 갔다. 단지 돌아올 때만 마차를 이용했다. 그는 잘못이 있는 제자들을 별로 꾸짖지는 않지만, 작은 잘못의 경우가 아니라 심각한 본질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 제자를 길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술을 과도하게 마셨을 경우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제자가 그 버릇을 고쳤다.”¹⁸⁾

종교적 활동 이외에 람모한은 사회적 관습을 개혁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이 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이었다.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산채로 화장을 당하는 풍습인 사티를 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람모한은 1818

16) Collet, *Op. cit.*, 1913, p.24.

17) 이 집회는 매주 한번씩 열렸다. 람모한 로이는 캘커타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가운데 하나인 Maniktala에 있는 집 정원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2년 후에는 그 다른 하나의 집인 Simla에 있는 집으로 옮겨서 만났다. 진행방법은 힌두교 경전에서 발췌한 텍스트들을 암송하고, 람모한과 그 친구들이 지은 신학적 찬가들을 부르는 것 등이었다. *Ibid.*, pp.31-32.

18) *Ibid.*, pp.136-137.

년부터 팜플렛을 발행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사티에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누법전을 비롯한 다른 힌두교 법전들을 연구하고, 모든 법전들이 다 이런 잔인한 의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관습을 찬성하는 것들조차도 그것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¹⁹⁾ 그의 이런 행동들은 정통 힌두교도들에게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정통 힌두교도들은 그와의 “전쟁”도 불사했으며, 그의 일상적 삶은 위협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마하잔(Mahajan, Vidya Dhar)은 “1829년 벤틀크(Bentinck, William) 총독이 사티를 금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일관된 지지 때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광범위하게 힌두교도들에게 퍼져 있던 관습인 일부다처제도 우파니샤드에서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람모한은 그 자신이 사티라는 관습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 가운데 한사람이 바로 그것에 희생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훨씬 더 충격을 안겨주었다.²¹⁾

마누법전에 따라 여성들의 재가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홀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편을 따라 같이 불태워지면 가장 모범적인 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법전이나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을 했던, 아니면 단지 죽음이 싫어서건 본인이 화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족들에 의해 죽음이 강요된다는 것이다. 1818년 8월 인도의 영국정부에 낸 그의 청원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여성들이 상속인들의 설득으로 자신들의 남편과 함께 장작더미 위에서 스스

19) 예를 들어 마누법전에 나와 있는 여성의 다르마를 보면, 비록 여성이 독립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즉,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젊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정숙하게 정절을 지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anu Smṛiti*, 이재숙, 이광수 옮김, 『마누법전』, 한길사, 1999, 제5장 147-166절 참조

20) Zachariah, Aleyamma, *Modern religious and secular Movements in India*, Bangalore, 1998, p.17.

21) Sastri, *Op. cit.*, p.30.

로를 불태우도록 유도되고 있다. 또 슬픔의 와중에 경솔하게 내뱉은, 죽은 남편과 함께 불타겠다는 결심을, 두려움으로 철회하려는 다른 사람들(여성들)은 장작더미 위에서 밧줄로 묶여서 푸른 대나무로 짓눌린 채 불길에 타 버려지도록 하고 있다. 불길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들은 친척들에 의해 다시 붙들려와서 불에 타 죽는다. <중략> 이 모든 사례들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식뿐 아니라 어떤 사스트라에 따르더라도 살인이라고 청원자들은 제기하는 바이다.²²⁾

결국 사티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지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였다. 그것은 바로 과부의 재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면, 남편이 죽더라도 금욕적인 일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굳이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과부재혼을 허용하자는 논의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람모한은 어린아이의 결혼과 일부다처제, 그리고 유아살해 등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근대식 교육, 특히 영국식 교육의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여성교육의 도입은 당시까지 무지로 인해 판단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인도의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파니샤드의 사례를 들고 있다.²³⁾ 우파니샤드에서는 남녀의 차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지식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었다. 람모한에 따르면 그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되어 여성을 무지의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람모한은 켈커타에 거주한 이후, 이전의 동인도회사의 관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교육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주창하였다. 1823년 암허스트(Amherst)에게 보낸 편지에서 람모한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힌두교 권위자들이 지도하는 산스크리트 학교를 정부가 설립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에서는 쓸모 없거나 별로 실용적이 못되는 상세한 문법적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특질들만을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2천여 년 전에 알려진 지식을 배울 것이다.²⁴⁾

22) *Ibid.*, p.31.

23) 야주르 베다의 브리하드 아라나카 우파니샤드를 보면 야주나발키야는 그의 아내 마이 트레이에게 가장 어려운 본질인 브라흐만에 대한 신성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내는 그것을 따르고 완전히 알아들었다. *Bṛhad-āranyaka Upaniṣad*, 2장 4편 참조

뒤이어 람모한은 영국의 예를 들어가며 수학, 자연철학, 화학, 해부학과 그 외 다른 응용과학을 비롯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²⁵⁾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도에 새로운 서양의 학문이 도입되어야 하며, 인도인들에게 서구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의 교육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도 힘을 쏟아 신문을 발행하는 등의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가장 힘을 쏟고,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것은 유일신을 기반으로 하는 힌두교의 개혁과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교육이었다.

그렇지만 람모한 로이의 최고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인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힌두교의 뿌리를 찾아 진정한 힌두교로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힌두교의 뿌리를 우파니샤드에서 찾았다. 따라서 힌두교도로서의 그의 저술활동은 바로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16살 때 힌두교의 우상 숭배와 미신적 행위들에 반대하는 글을 썼던²⁶⁾ 람모한은 우파니샤드와 베단타 수트라를 뱅갈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자신의 종교관을 전달하기 위한 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는데, 그러한 것은 고달팠던 동인도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다.

1830년 람모한은 유럽으로 가게 된다. 그것은 십여 년 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이었다. 그가 유럽으로 떠난 실질적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벤딩크 총독이 제정한 Suttee에 대한 법령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반대파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동인도회사의 현장을 개정하려고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동안 영국에 머물기 위해서였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 1833년 9월 27일 브리스톨에서 질병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Ⅲ. 람모한 로이의 종교관

1.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19세기 인도의 종교개혁운동의 역사는 브라흐마 사마지로부터 출발하였다. 1815년, 람모한 로이는 아트미아 사바(Atmiya Sabha)를 조직하였다. 이 협회는 종교

24) Roy, Rammohan, "Letter to Lord Amherst on English Education," 1823.

25) Tagore, Saumyendranath, *Rammohun Roy: His Role in Indian Renaissance*, Kolkata, 2001, p.16.

26) Collet, S.D., *Op. cit.*, p.497.

적 진리를 보급하고 신학적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협회이다. 람모한은 랑푸르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있었다. 협회를 창설할 즈음,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 특히 유력한 후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사마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드와르카 나트 타고르(Dwarkanath Tagore)도 있었는데, 그는 후일 람모한의 후계자가 된 데벤드라 나트 타고르(Debendra Nath Tagore)의 아버지이며, 시인 타고르(Rabindra Nath Tagore)의 할아버지이다.

처음 몇 년간 이 모임은 람모한의 집에서 매주 개최되었지만, 완전히 공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람모한과 그의 개인적 친구들이 주로 참석한 모임이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처럼 회중 예배를 가졌는데, 이것은 당시 힌두교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의식은 토요일 저녁에 행해졌으며, 힌두교 경전에서 발췌한 것을 암송하고, 람모한과 그 친구들이 작곡한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정도였다.²⁷⁾

1819년 람모한과 몇몇 동료들 사이에 우상 숭배라는 주제에 대해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 이후 몇 년간 협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 하나의 이유는 그를 반대하는 조카와 또 다른 사람이 제기한 골치 아픈 소송사건 때문이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유니테리언 선교사인 아담과 함께 유니테리언 집회를 조직하는 일에 람모한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었다.²⁸⁾

본래 람모한은 세람포르의 침례교 선교사들과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담(William Adam)를 비롯한 세 명의 다른 선교사들이었다. 람모한은 이들과 함께 성서를 벵갈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번역이 진행되면서 람모한과 아담 사이에는 종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의에서 아담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결국 아담은 유니테리언파로 개종하였고,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람모한의 영향으로 개종하였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이 후 람모한은 아담이 캘커타에 유니테리언 선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게 되었다. 이때부터 람모한은 자신을 힌두유니테리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이 선교회의 주요후원자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몇 년간 계속해서 선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람모한이 아데미 아 사바의 활동을 멈추게 된 하나의 원인일 뿐 아니라, 다른 힌두교인들로부터 비

27) Collet, *Op. cit.*, 1913, pp.31-32.

28) Sastri, *Op. cit.*, pp.17-18.

난받는 원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²⁹⁾

아트미아 사바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2년 후인 1821년 9월 유니테리언 선교 협회가 설립되고, 람모한 로이는 유니테리언으로 개종한 선교사 아담과 함께 이 협회를 이끌었다. 그 뒤로 람모한은 아담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영어로 예배를 갖게 된다. 이것이 힌두교 유니테리언이 되었지만, 람모한과 아담을 묶어주는 것은 신의 단일성, 유일성이라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결별하게 되었다.³⁰⁾

결국 아담과 결별하고 난 뒤 람모한은 브라흐마 사마지를 설립하였다. 브라흐마 사마지는 1828년 8월 20일 브라흐마 사바(Brahma Sabhā)라는 이름으로 첫 집회가 열렸다.³¹⁾ 브라흐마 사바는 처음 캘커타의 Chitpore Road 48번가에 있는 집을 빌려서 시작되었다. 람모한의 제자인 타라찬드 차크라바티(Tarachand Chakrabarti)를 협회의 첫 서기로 임명하였다. 브라흐마 사바는 이 셋집에서 2년간 모임을 갖고, 1830년 1월 23일 협회 자체의 건물을 갖게 되었다.³²⁾ 그러나 초창기의 모임은 상당히 우발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조직이나 신조, 교

29) Farquhar, J. N., *Modern Religious Movements in India*, (Macmillan Company, 1919), pp.31-34.

30) *Ibid.*, p.34.

31) 브라흐마 사마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어찌되었든 아담이 관계했던 유니테리언 선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당시 Harkara라는 이름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이 사무실에 선교사 아담이 유니테리언 협회라는 이름으로 협회를 설립하였다. 어느 날, 람모한이 제자들과 Harkara 사무실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길에서 Chandra Shekar Deb 등이 말했다. “우리의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남의 기도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뿐인 신을 예배하려면 우리 자신의 기도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제안이 바로 브라흐마 사마지의 최초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마도 유니테리언 집회가 급속하게 쇠퇴해가고 있던 1828년 초에 일어났던 것 같다. 이러한 제안을 받자마자 람모한은 즉각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상의하였으며, 그들이 그 생각에 찬동하자 자신의 집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건물을 세울 때까지 Chitpore Road에 있는 Kamal Lochan Bose의 집을 빌리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서 1828년 8월 20일 수요일에 공개 예배가 시작되었다.

아담이 사마지의 직접적인 창시자라는 또 다른 설명도 있다. 그러나 당시 아담은 그가 쓴 몇몇 편지들로 볼 때 힌두교 중심의 사마지를 창시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들이 기독교 유니테리언으로 개종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아담 자신도 람모한의 영향으로 인해 유니테리언으로 개종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하더라도 브라흐마 사마지는 람모한이 제자들과 직접 창립한 것이라고 보는게 옳다. Collet, *Op. cit.*, pp.129-134.

32) Tagore, *Op. cit.*, p.45.

리 등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초기에 이 모임은 매주 토요일저녁에 개최되었다. 예배도 진행되었는데, 우파니샤드에서 발췌된 텍스트를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암송하고, 이것을 다시 벵갈어로 번역해서 읽었으며, 벵갈어로 설교가 진행되었다.³³⁾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칸이 쳐진 한쪽 방에서는 두 명의 텔루구 브라만이 베다를 암송하기도 하였다. 설교문은 람모한이 쓴 것이 많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쓰기도 하였다. 이 뒤에는 산스크리트어나 벵갈어로 된 찬가³⁴⁾들도 불렀는데, 그것은 람모한과 그의 동료들이 만든 것들이었다.³⁵⁾ 이런 여러 의례의 모습들은 기독교의 예배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지만, 그 외의 다른 것, 즉 조직이나 회원자격, 그리고 신조는 전혀 없었다. 1830년에 가서야 신조라고 할 만 것이 타고르와 람모한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³⁶⁾

이러한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람모한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종교단체를 만들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이 모이고 예배를 지내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종교단체에 어울리는 신조도 생각해 내게

33) 의식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우파니샤드에서 발췌한 구절을 산스크리트어로 암송하였는데, 그것은 단지 브라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이루어졌다.
2. 위의 구절들을 벵갈어로 번역해서 읽어준다.
3. 벵갈어로 설교한다.
4. 람모한이 작곡한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른다. *Zachariah, Op. cit., p.15.*

34) 당시 람모한이 지었다는 찬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일신을 명상하라,
그는 지상과 바다, 대기에 충만하시고,
무한한 이 우주를 창조하셨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아무도 그를 알 수가 없네.
그분은 주님중의 주님이시며, 신중의 신이시며, 지배자중의 지배자이시네.
받들어야 할 이 분을 알게 해 주시기를.

.....
말을 능가하는 존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주는 그분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네.
경전에서 말한 모습이 아니시네.
어디에서 그분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그대가 알고자 한다면, 성심껏 묵상하라.
그러면 그대는 참 진리에 이를 것이요, 무지에서 자유로울 것이네.
나는 다른 길을 모르겠네.

Collet, Op. cit., p.140.

35) *Farquhar, Op. cit., p.34.*

36) *Collet, Op. cit., p.159.*

된 것이다.

1830년 1월 람모한은 사바의 신조를 결정하였다. 그것은 탁월한 기록이며, 그 포용성과 보편성은 독특한 것이었다. 그것은 브라흐마 사마지의 기본적인 신조가 되었다.³⁷⁾ 사마지의 신조는 어떠한 우상적 요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람모한 로이가 인도를 떠나 유럽으로 간 이후, 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브라흐마 사바를 브라흐마 사마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1830년 람모한이 그의 아들에게 찬가를 작곡해서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는데, 먼저 '브라흐마 사바'라고 부른 후, 같은 편지에서 뒤이어 '브라흐마 사마지'라고 부르고 있는데,³⁸⁾ 바로 이 무렵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브라흐마 사마지는 람모한의 손을 떠나 데벤드라나트 타고르의 영향을 받게 된다.

2. 람모한 로이의 종교관

람모한은 어린 시절 파트나에서 이슬람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평생 을 좌우하는 경험이었다. 그는 이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유일신 교리를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도, 기독교의 주류인 삼위일체설을 배척하고 유니테리언 신봉자를 옹호하게 된다. 그가 동인도회사의 근무를 그만두고 캘커타에 거주하면서 서양인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니테리언파에 많은 공감을 가졌다. 그는 세람포르에서 성서를 번역하는 일을 맡았을 때, 선교사 아담이 유니테리언파로 개종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아담이 주도하는 유니테리언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전통에서 믿고 있는 삼위일체는 변질된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적 뿌리를 힌두교 전통에서 찾아내려 하였다. 그는 힌두교의 수많은 경전들 가운데 우파니샤드를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가 우파니샤드를 자신의 사상적 중심으로 삼은 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37) 정확히 1930년 1월 8일 신조가 만들어졌다. 신조가 이때 만들어지고, 독립된 건물로 옮겨갔으며, 명칭도 브라흐마 사마지로 바뀌게 된 것이 날씨는 다르지만 모두 1830년이었다. 브라흐마 사마지의 회원들은 1830년을 협회가 시작된 월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참고로 기념식 날씨는 사마지 소유의 건물이 문을 연 1월 23일이다. Collet, *Op. cit.*, p.161.

38) Tagore, *Op. cit.*, p.47.

우선 우파니샤드는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근본 경전이다. ‘우파니샤드는 브라흐마 수트라(또는 베단타 수트라), 바가바드 기타와 함께 힌두종교의 절대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³⁹⁾ 우파니샤드 이후의 사상사적 전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학파들이 그들의 이론적 근거를 우파니샤드에서 찾고 있을 정도로 우파니샤드는 인도 고전 사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인도인의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한 것도 우파니샤드이다.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 즉 힌두교는 물론이고 불교, 자이나교에서의 최고 목표는 해탈이다. 해탈을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생관, 즉 인간은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윤회관에 근거한 것이다. 우파니샤드가 나오기 이전 베다나 브라흐마나 문헌에는 아직 윤회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 가면 윤회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게 되고 이것이 인도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이루게 된다.⁴⁰⁾

결정적인 것은 그가 타종교의 유일신 교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유일신 교리가 우파니샤드에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파니샤드의 핵심주제인 브라흐마가 바로 그의 유일신 교리에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거들이 우파니샤드를 그의 사상 중심에 위치시킨 이유였다.

그리하여 그는 1815-1819년 사이에 4개의 우파니샤드⁴¹⁾와 베단타 수트라를 뱅갈어와 영어로 연속해서 번역, 출판하였다. 또한 자신의 종교관을 담은 글을 계속해서 발표하였으며, 강연이나 토론을 통해서도 자신의 종교관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그가 이러한 작업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힌두교 관습들이 비합리

39) Radhakrishnan, Sarvepalli, *The Hindu View of Life*, 허우성 옮김, 『인도인의 인생관』, 서광사, 1994, 24쪽.

40) 베다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측면만이 나타나고 그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브라흐마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브라흐마나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서 또 다시 죽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 오면,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을 다양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의 설명방법에 따라 원시적 윤회관과, 보다 발달된 윤회관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즉 윤회에 대한 개념은 우파니샤드 시대에 와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은 이후 인도종교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윤용복, 「고대 인도 윤회관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28-37쪽.

41) 1815년부터 1819년 사이에 람모한이 번역한 뱅갈어와 영어로 4가지 우파니샤드는 아타르바 베다(Atharva-Veda) 소속의 문다카 우파니샤드(Mundaka-Upanishad), 사마 베다(Sama-Veda) 소속의 케냐 우파니샤드(Kena-Upanishad), 야주르 베다(Yajur-Veda) 소속의 카타 우파니샤드(Katha-Upanishad)와 이사 우파니샤드(Isa-Upanishad)이다. 그는 또한 아타르바 베다 소속의 만두키야 우파니샤드(Mandukya-Upanishad)를 뱅갈어로 번역하였다. Sastri, *Op. cit.*, 1974, p.18.

적이고, 부도덕한 면들로 가득 차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힌두교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였다. 그는 철학자도 신학자도 아니었다. 즉 그는 어떤 체계적인 이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다. 단지 그가 보기에 미신적인 것들과, 대중적 힌두교의 부도덕한 면들에 맞서서 운동을 펼쳤다. 그는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서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기독교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보기에 세 신앙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일신교적 요소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힌두교의 본래의 진리이며 모든 인간이 단결할 수 있는 보편종교라고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순수한 요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중들에 의해 타락되고 더럽혀진 것이다.⁴²⁾

즉, 그에게는 우파니샤드와 베단타 이후, 종교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다. 람모한이 생각하기에 종교가 이처럼 왜곡된 이유는 기득권층들 때문이었다. 그 기득권층이란 람모한이 종교개혁운동을 펼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정통 브라만 사제층들의 반발이 더 심했다고 볼 때, 이들이야말로 바로 종교를 왜곡시킨 장본인들이며, 람모한에게는 개혁의 대상들이었다. 이렇게 힌두교 전통에서 자신의 사상을 찾았음에도, 그는 이제까지 힌두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종교적 관습에 반기를 들었다. 정통 브라만 사제 계층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종교 개혁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람모한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힌두교의 다신숭배와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적 행위 등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에게 기복신앙이나, 그 외 비합리적 요소가 담겨진 종교현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힌두교의 우상숭배와 다신교적 요소를 비난하고 대신 진정한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므로 그 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람모한이 힌두교 사상의 핵심이요, 근원이라고 하는 우파니샤드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다. 그 사상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굳이 요약하여 말하자면, 우선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브라흐만과, 그 브라흐만을 깨닫는 지식의 추구,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한 인생관, 즉 윤회에 대한 사상 등일 것이다.⁴³⁾ 그 가운데서도 브라흐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42) Farquhar, *Op. cit.*, pp.36-37.

43) Paul Deussen은 베단타 학파의 견해를 이용하여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

우파니샤드의 최고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파니샤드에서는 많은 현자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비유와 설명을 통해 브라흐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람모한이 파악한 우파니샤드의 핵심적 사상은 일원적 사상이었다. 즉 절대 유일신에 관한 사상이다. 그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브라흐만을 절대적 유일신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파니샤드에서의 브라흐만은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우주의 창조자이며 주재자”이다.⁴⁴⁾

본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브라흐만은,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이 그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우파니샤드에서는 아직 람모한의 입장과는 달리 브라흐만이 비인격적인 형이상학적 실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 우파니샤드로 넘어오면 브라흐만은 분명히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인격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시기의 우파니샤드에서 신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유일자로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안에 내재하며, 마지막에는 다시 회수하는 대주재자(Mhaśvara)이다.⁴⁵⁾

라다크리슈난은 우파니샤드에서의 브라흐만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논리적인 설명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이 결코 형이상학적인 추상이거나 무차별적인 근본이 아니며, 또한 침묵하고 있는 공간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완전하고 실재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역동적인 영(靈)이며, 무수히 다양한 모습의 실재들의 근원이며,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⁴⁶⁾

모든 만물은 브라흐만에서 비롯되며, 또한 그 만물 안에 브라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원리적 모습이 아니라 실재적인, 활동하는 인격신적인 모습

누고 있다. 신학: 모든 사물의 근원으로서의 브라흐만에 대한 교리, 우주론: 이 근원이 우주를 형성하기 위해 전개된 것에 대한 교리, 본성: 자신으로부터 전개된 우주에 영혼으로서의 브라흐만이 스며든다는 교리, 인생관과 윤리: 죽음이후의 영혼의 운명과, 그 때문에 요구되는 삶의 태도에 관한 교리. Deussen, Paul, *The Philosophy of the Upanishad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6, p.52.

44) Haberman, D. L., “Roy, Ram Moha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12,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480.

45) 길희성, 『인도철학사』, 민음사, 1984, 40쪽.

46) Radhakrishnan, Sarvepalli, *Indian Philosophy*, Vol.1,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p.172.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브라흐만은 모든 신들과 사람들 속에 스며있으며, 전 우주에 스며있는 순수한 본질과 동일시되었다.⁴⁷⁾ 우파니샤드에서의 브라흐만은 활동하는 존재로서 곧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재자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브라흐만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람모한은 우파니샤드 뿐만 아니라 베단타 수트라(Vedānta sūtras)도 우파니샤드와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였으며, 그것을 통해서도 일신교에 대한 교리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베단타 수트리를 번역하고, 또 그것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우파니샤드와 베단타의 일신론적 사상을 근거로 람모한은 힌두교의 다신교적 특성을 비난하고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힌두교도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이며, 그것은 브라만 사제들이 멋대로 과거의 것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힌두교의 다른 교파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브라만들도 그들이 계속 행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논증을 예로 들지 않고, 그들의 조상을 절대적 전거로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진실하고 영원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우상숭배를 버렸기 때문에 내게 악의를 품게 되었다. <중략>

힌두 신학, 법학, 문학의 전 체계는 베다 속에 담겨 있으며, 베다는 창조와 동시에 생겨났다고들 주장한다. 베다의 경전들은 엄청나게 방대하며, 매우 고귀하면서도 은유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 겉보기로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수많은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2천여 년 전에, 위대한 비야사(Vyāsa)⁴⁸⁾가 이

47) Zaehner, Robert Charles, *Hinduism*, 남수영 옮김, 『힌두이즘』, 여래, 1996, 66쪽.

48) 여기에서 언급된 베다는 물론 우파니샤드를 가리킨다. 본래 베다는 만트라(Mantra), 브라흐마나(Brahmana), 우파니샤드의 세 부분(아란야카, Āraṇyaka를 별도로 구분하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샹카라(Śaṅkara)로부터 그 이후의 전통은 베단타 수트라(Vedānta-Sūtra)를 바다라야나(Bādarāyana)의 저술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이 바다라야나의 저술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도전통에서는 바다라야나의 비야사를 동일인물로 간주하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저술연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도의 학자들은 대체로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Radhakrishnan, *Op. cit.*, II, pp.432-433.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시기는 대체로 기원 후 400-500년 사이로 추정되기도 한다. 김희성, 앞의 책, 199쪽. 베단타 수트리를 또한 브라흐마 수트라(Brahma sūtras)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브라흐만에 대한 교의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샨리리카 수트라(Śāriraka Sūtra)라고도 불린다.

자료들에서 제기되는 지속적인 난점들을 성찰하고는, 훌륭한 안목으로 전체 베다 경전들에 대한 완벽하면서도 간결한 요약본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들을 조화시켰다. 그는 이 저작을 베단타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말은 두 개의 산스크리트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모든 베다의 해답(The resolution of all the Vedas)이라는 뜻이다. 베단타는 모든 힌두인들에 의해서 항상 공경 받아 왔다. 그리고 베다 경전들의 보다 더 산만한 논변들 대신에 베단타는 언제나 베다 경전들과 동일한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거론되었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의 어두운 커튼 안에 감춰져서, 그리고 브라만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그들만이) 어떤 책이라도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단타는 계속 인용되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 힌두인들의 관습이 베단타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⁴⁹⁾

즉 브라만 사제들은 자신들만이 경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멋대로 경전을 해석하여 경전 본래의 의미를 없애고 고대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적 모습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람모한은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힌두교의 본래 모습, 즉 초기 선조들의 신앙을 되찾고자 경전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⁵⁰⁾

“신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다른 감각기관으로도 알 수 없다. 또 신은 고행이나 경건한 제의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문다가 우파니샤드 3장 2편 8절). “신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본다. 결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듣는다. 그는 길지도 짧지도 않다. 이성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말로써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베다나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비야사는 또한 베다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장들의 결과를 통해서 신에 대한 명확하고도 궁극적인 지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즉 무엇이던, 어떻게든, 신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두 번째 텍스트에서 신의 본질을 정의하려고 하려 하지 않으면서, 신의 (활동의) 결과와 신의 업적을 통해 신을 설명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의 참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태양이 시간을 연결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파멸을 주도하

Radhakrishnan, *Op. cit.*, p.431.

49) Roy, Rammohun, *To The Believers of The Only True God*, 1816, p.1.

50) Hay, *Op. cit.*, p.21.

는 그는 신이다.” 우리는 우주의 각 부분의 탄생과 유지, 그리고 소멸뿐만 아니라 잡다하고 경이로운 우주를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전체를 주재하는 존재를 생각해 낸다. 그리고 그를 신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항아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고 결론짓듯이. 마찬가지로 베다는 다음과 같이 신(의 존재)을 언명한다. “우주를 생겨나게 했고, 우주의 주재자, 그리고 우주를 만든 자, 그는 신이다.”⁵¹⁾

람모한에게 있어서 신은 완전히 활동하는 존재이다. 그 신은 기독교의 하느님이며,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모습이다. 태양을 보고 시간을 연결짓고, 항아리를 보고 그 생산자를 연상할 수 있듯이, 우주를 보고 그것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존재증명⁵²⁾을 연상시킨다. 람모한에게 있어서 신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해 낼 수 없는 존재지만, 창조주로서, 주재자로서의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파니샤드는 그의 유일신론의 근원, 더 나아가 그의 모든 사상의 근원이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람모한은 우파니샤드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브라흐마 사마지에서 가르친 윤리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따온 것이었다. 람모한은 이슬람의 유일신론과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원리로 뒤섞여 있었다.⁵³⁾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마치 힌두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힌두교를 비롯한 인도종교의 근간은 윤회와 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파니샤드의 사상이 나타난 이래로, 인도전통에 뿌리를 둔 종교는 항상 윤회와 업이라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깔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Roy, Rammohun, *Abridgment of the Vedent.*

52)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증을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항아리의 논증과 비슷한 것으로 패일리(William Paley, 1743-1805)의 시계에 관한 논증을 들 수가 있다. 패일리는 우리가 사막에서 다른 자연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 자연물을 만든 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계를 발견하였다면, 이지적인 어떤 심성(an intelligent mind)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도 그렇게 유추해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ick, John H., *Philosophy of Religion*, Prentice-Hall Inc., 1983, pp.23-24.

53) Zachariah, *Op. cit.*, p.16.

그러나 그는 신에 대한 관념, 세계에 대한 관념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합리적 절대 유일신론의 뿌리를 힌두교 전통에서 찾고 있다. 즉 우파니샤드 시대의 순수한 힌두교가 퇴락한 관습으로 뒤덮여 오늘에 이른 것이며, 힌두교는 그런 관습들을 씻어버려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람모한이 의도하는 힌두교의 개혁은 과거, 특히 우파니샤드의 정신으로부터 단절된 힌두교의 참모습을 되찾고 우상숭배와 미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힌두교의 참모습이란 절대적 유일신을 신봉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일신론적 종교관의 전거를 우파니샤드에서 찾고 있지만, 그의 이런 종교관은 어렸을 때 받은 이슬람의 영향이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여기에 서구 사상, 즉 기독교의 영향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이러한 그의 신에 대한 관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몸에 힌두교의 옷을 걸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가 제정한 브라흐마 사마지의 신조를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다.

건물, 토지, 재산, 그 외 부동산과 그 부속물들은 공적 모임의 장소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질서 있는 맑은 정신, 그리고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태도로 신을 예배하고 찬미할 때 가능하다.

우주의 주재자요 보존자인 신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 어떤 다른 이름이나 별칭, 명칭 등으로 불러서는 안되고 영원히 파악할 수 없는, 불변하는 본으로 불러야 한다.

조각상이나 동상 등의 형상, 그림, 회화, 초상화나 그와 같은 어떤 것들도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희생제나 제물, 헌금이나 봉헌 등도 그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

54) 1813년에 동인도회사는 '교육'을 목적으로 1만 파운드(십만 루피)를 적립해 두었는데 이때 많은 재정이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한 인도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인도의 젊은 지식인들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힌두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근대적인 모습에 기여하도록 한 바도 있다. Wolpert, Stanley, *A New History of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209-210. 따라서 람모한 뿐 아니라 젊은 지식인들도 람모한의 사상이 형성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혼자만의 독자적 사상이 아닌, 당시 인도문화에 대한 자부심, 서구 사상에 대한 반감의 완화 등이 한데 모여서 람모한의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을 내부에서, 즉 상술한 부동산 안에서 종교적 목적이나 먹기 위해 죽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사고로 인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은 예외), 연회를 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예배나 찬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물체, 어떤 생물, 또는 무생물, 그것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⁵⁵⁾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신은 절대적이다. 그 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신의 이름을 달리 부를 수 없다는 내용은 기독교의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연상시킨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도 숭배할 수 없다는 내용은 바로 이슬람의 우상숭배금지와 같다. 즉 이슬람 사원 안에는 어떤 모습의 조각상이나 동상, 그리고 그림이나 회화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 브라흐마 사마지의 사원 내부에서 종교적 집회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다.

IV. 맺음말

브라흐마 사마지의 창립자인 람모한 로이는 근대 인도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이다. 람모한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도의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비록 잠시 힌두교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종교는 힌두교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파트나에서 공부할 때, 람모한은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였다. 그는 이때 이슬람과 기독교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서양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희랍 철학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영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았다.

그의 종교관을 보면 이슬람의 요소가 특히 짙게 배어 있었다. 신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그는 절대적 유일신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신관과 같은 것

55) Collet, *Op. cit.*, pp.160-161. Farquhar, *Op. cit.*, p.35.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의 주류는 삼위일체설을 신봉하고 있지만, 람모한은 유니테리언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흐마 사마지의 의례를 보면 기독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힌두교의 고전인 우파니샤드 사상을 부활시키면서, 힌두교 전통에는 전혀 생소한 주말 집회를 개최하고, 또한 의례과정에 있어서도 찬가를 부른다거나, 경전을 선택적으로 찾아 읽고, 그리고 설교 등을 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그는 특히 가톨릭보다는 개신교에 더 가까웠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윤리에 있어서도 람모한은 예수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리하여 성경을 벵갈어로 번역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힌두교라는 부대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교리와 신관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절대적 주재자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온통 두 종교의 교리와 윤리, 신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제도들도 서구의 것들을 취하려 노력하였다는 면에서 그것은 더욱 피부로 느껴진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케첩 찬드라 센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마지의 모습은 그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사마지가 쇠퇴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